

글쓰기로서의 시쓰기 :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시집》에 나타난 메타-시적(meta-poetic) 요소

이 정 호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셰익스피어처럼 위대한 작가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결코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의 평가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끔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T.S. 엘리엇

About anyone so great as Shakespeare, it is probable that we can never be right; and if we can never be right, it is better that we should from time to time change our way of being wrong.

T.S. Eliot

I. 또 하나의 오류를 준비하면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시집》(*Sonnets*, 이하 《소네트》로 씀)은 그의 많은 희곡과 더불어 영문학에서 가장 사랑받는 서정시로 여겨져 왔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대한 이런 애정은 역설적이게도 이를 정확히 읽는 방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게 되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그의 《소네트》에 나오는 내용을 둘러싼 전기적(傳記的) 요소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된다. 이런 논란은 다음의 몇 가지 범주로 요약된다.

그 첫번째의 논란은 《소네트》에 나오는 젊은이(the young man)와 《소네트》의 1609년도 사절판(the 1609 Quarto)에 나오는 토마스 소프(Thomas Thorpe)의 헌정사(獻呈辭)에 언급된 W.H. 선생(Mr. W.H.)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논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1) 이 《소네트》에 나온 사건들은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2) 《소네트》에 나오는 젊은이는 한 사람을 가리킬 것이라는 가정. (3) 소프(Thorpe)의 헌정에 나오는 W.H. 선생과 《소네트》에 나오는 젊은이는 같은 인물일 것이라는 가정.

이러한 가정하에서 젊은이와 W.H. 선생을 실제인물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해서 학자들의 추적 대상이 된 인물들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다음의 두 인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 하나는 사우드햄프턴 백작(伯爵)(third Earl of Southampton)인 Henry Wriothesly(1573~1624)이다. 또 다른 하나는 웹브룩

백작(third Earl of Pembroke)인 윌리엄 허버트(William Herbert, 1580~1630)이다. 특히 Henry Wriothesly의 이름의 첫자의 순서를 바꿔 써 놓으면 W.H.가 되며, William Herbert의 이름 첫자도 마찬가지로 W.H.가 되므로 이들이 W.H.라는 실증이 학자들 사이에서 유력하게 되었다. 이들이 바로 W.H. 선생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방증은 여럿이 있다.

사우드햄프턴 백작을 보자. 그는 셰익스피어보다 아홉 살 아래였다. 셰익스피어는 1593년에 나온 《비너스와 아도니스》(*Venus and Adonis*)를 그에게 헌정했으며, 그 다음 해에 나온 《루크리스》(*Lucrece*)를 또한 그에게 헌정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후원자(patron)였으며, 또한 수려하게 생긴 청년이었다. 또 다른 인물인 윌리엄 허버트는 당시 못 사람들의 경애를 받았고, 또한 엘리자베드 여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인물이다. 그는 여왕의 시녀(Maid of Honor)였던 메어리 피튼 부인(Mrs. Mary Fitton)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그녀가 그의 사생아를 낳게 되었다. 이로 인해 둘은 조정에서 추방되고 일시 투옥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W.H.라는 추정은 단지 추정에 머물뿐 확증이 없다. 그 이외의 다른 인물에 관한 추정도 역시 추정에만 머물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고 그가 동성연애자라는 이론을 펴는 학자도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네트》와 셰익스피어의 생애를 연관시키려는 작업으로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스티븐 부스(Stephen Booth)는 《소네트》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는다¹⁾고 잘라 말하고 있다.

젊은이와 W.H. 선생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 다음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눈과 머리카락의 색이 검은 여인(the dark lady)과 셰익스피어와 경쟁관계에 있는 시인(들)(rival poet(s))에 관한 것이었다. 안색이 검은 여인은 젊은이나 마찬가지로 “문학적인 창조물”(a literary creation)²⁾일 가능성이 크다. 경쟁 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엘리자베드 조(朝)의 시인으로 작품이 전해지는 시인은 거의 모두 셰익스피어의 경쟁 시인으로 거명될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조지 채프먼(George Chapman)과 크리스토퍼 말로우(Christopher Marlowe)가 가장 유력한 두 명의 후보로 거명되곤 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위의 경우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시인을 셰익스피어가 《소네트》에서 염두에 두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논의한 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몇 가지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 첫째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그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순전히 문학적인 작품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이다. 토마스 소프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의 원고를 어떻게 그의 수중에 넣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것이 인쇄됐는지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처해 있는 현대의 독자가 이 시집에 나오는 인물들을 셰익스피어가 직접 만난 인물들과 동

1) Stephen Booth, ed., *Shakespeare's Sonnets*(New Haven Yale UP, 1977), p. 548.

2) Booth, p 549.

일시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일 것이다. 그 두번째 가정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시쓰기에 대한 시(poem on poetry writing)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가 그의 다른 희곡에서 희곡에 대한 연극인 메타드라마(metadrama)를 썼다는 사실을 유의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가정이 아니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짓지 않는다는 전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소네트》를 열린 시(open poetry)로 읽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제 필자는 이러한 사실에 유의하면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나타난 메타 시(詩)의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소네트의 자기반영성

《소네트》에 나타난 젊은이, 피부색이 검은 여인, 그리고 경쟁 시인(들)이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관계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나타난 이러한 요소들을 그의 생애와 연결시키려는 학자들의 끈질긴 노력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소네트》에 나타난 이러한 요소들과 셰익스피어의 삶을 연결시키려는 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학작품을 작가의 삶의 재현(再現, representation)으로 보려는 지금까지 계속돼온 고정관념의 포출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문학작품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사실을 재현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 하나는 작가의 삶의 재현이다. 또 하나는 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작품 속에 담아 외계의 사물을 모방함으로써 이를 재현하는 것이다. 학자들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서 셰익스피어의 삶에 나타난 전기적(傳記的) 요소를 찾으려고 노력해온 이면에는 문학의 근본가정으로서의 재현에 대한 이러한 집요한 집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서 그의 전기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금에 와서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문학의 근본 가정은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지금까지의 읽는 방법에서 벗어나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맞은 셈이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로운 과제는 그렇다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어떻게 다시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소네트》에서 셰익스피어 개인의 전기적 요소가 배제되고, 또한 《소네트》는 외계의 사물에 대한 모방으로서의 재현이 아니라면 《소네트》는 단지 하나의 시에 대한, 그리고 시쓰기에 대한 시로서 읽을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는 올바른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

Ⅲ. 산종(散種, dissemination)으로서의 글쓰기

하워드 펠퍼린(Howard Felperin)의 지적에서 보듯이 “《소네트》는 걸로 보기에…탈구축(deconstruction)을 염두에 두고 쓴 것처럼 보인다.”³⁾ 탈구축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산종(dissemination)이다. 산종이라고 번역되는 dissemination이라는 영어 단어는 dis-와 semination라는 두 부분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dis-라는 접두어는 분리, 제거 등의 뜻을 가진 말이다. Seminate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라틴어의 *semen*이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이는 씨(種)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dissemination이라는 단어는 씨를 흩뿌린다는 뜻이 있다. 이를 우리 말로 옮겨 놓으면 파종(播種) 또는 산파(散播)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종이나 산파라는 단어는 씨를 뿌려 가꾸고 이를 추수한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dissemination의 번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 대신 산종이라 단어를 이의 한국어 번역어로 쓴다. 그러므로 산종이라는 단어는 파종이나 산파가 가지는 추수를 포함하는 긍정적인 의미 대신에 추수를 포함하지 않는 그저 흩뿌린다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대개 씨를 뿌리는 행위는 씨가 싹트고 이를 정성드려 키워서 수확한다는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씨뿌린 사람이 씨의 성장과 발육에 책임과 애정을 가진다는 의미를 풍긴다. 그러나 산종이라는 단어에는 씨를 뿌린다는 단어가 풍기는 이러한 책임과 애정의 측면보다는 흐트러뜨린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조돼 있다. 흐트러뜨린다는 말은 또한 파종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적자(嫡子)가 가진 정통성 대신에 서자(庶子)가 가진 비정통성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종이 정당성이 인정되는 종자를 정성스럽게 가꾸는 것이라면, 산종은 정통성 여부에 패념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책임없이 씨를 뿌려, 이의 생육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의미까지를 내포하는 단어이다.

산종이라는 단어가 이와같은 의미를 가지게 된 데에는 데리다(Derrida)에게 힘입은 바가 많다. 그는 산종에 대한 이론을 그의 《산종》(*La Dissémination*, Paris: Seuil, 1972)이라는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산종이라는 용어는 근본적으로 텍스트(text)는 의미를 고정시키는 근거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의미의 다양성을 생산하는 근거로 보는 데리다의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신비평에서 텍스트를 단순화된 의미의 구조로 보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다. 데리다에게 있어서 텍스트는 통일된 의미의 집합체가 아니라 구멍이 숭숭 뚫린 열려진 구조이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의미를 확정시키기 보다는 그 자체로서 불안정한(unstable) 존재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텍스트는 독자로 하여금 자유 유희(*free play*)를 가능하게 하며,

3) Howard Felperin, *Beyond Deconstruction: The Uses and Abuses of Literary Theory*(Oxford: Clarendon P, 1985), p. 149.

이러한 독자의 자유 유희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메꾸게 해준다. 독자의 이러한 자유 유희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말을 빌리면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즐거움”(the pleasure of the text)을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독자가 향유하는 자유 유희는 즐거운(joyous) 것이며 또한 정도가 지나친(excessive) 것일 수도 있다. 이는 곧 산중이 의미하는 서자로서의 비정통성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책임을 지지않는 성적 쾌락과 발산의 의미와도 맥을 같이 한다. 어느 하나의 정통적인 읽기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산중은 곧 죽보를 무시한 비정통적인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산중은 정도(正道)를 따르지 않는 넘쳐흐름(spilling), 의미의 확산(diffusion of meaning), 그리고 과잉(surplus) 등을 함축한다.⁴⁾

이러한 산중의 의미는 《소네트》의 읽기에도 큰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다. 《소네트》의 저자는 물론 셰익스피어임에 틀림없으나,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소프(Thorpe)에 의하여 출판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소네트》는 셰익스피어의 적자(嫡子)가 아니다. 펠퍼린은 이를 가리켜 《소네트》는 “작가의 어떠한 의도로부터도 고아(孤兒)가 된”⁵⁾ 작품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셰익스피어가 《소네트》를 교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거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셰익스피어가 《소네트》를 썼지만 이의 출판에 있어 셰익스피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소네트》는 타의에 의하여 서자(庶子)가 된 셈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책의 헌정사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헌정사에는 “To the Onlie Begetter”라는 표현이 나온다. Begetter라는 단어의 의미는 학자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그 몇 가지를 보면, (a) 이 시집을 쓰게 영감을 불어 넣어준 후견인(patron)이라는 의미로서의 “inspirer”가 그 하나이다. 다음으로는 (b) 이 시집의 출판인에게 원고를 가져다 준 사람이라는 뜻으로서의 “procurer”이다. 그러나 OED에는 “begetter”의 의미가 다음 두 가지밖에 적혀 있지 않다. (1) “a procreator,” (2) “the agent that originates, produces or occasions”.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begetter”는 그러므로 후견인이란 의미인 “inspirer”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⁶⁾ 그러나, 이 begetter가 Mr. W.H. 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또한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Mr. W.H.가 누구인지는 더욱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onlie begetter”는 단지 “부재하는 현전”(the absent presence)⁷⁾으로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의 산중을 더욱 부채질한다.

산중으로서의 글쓰기는 《소네트》의 시작(詩作)에서도 드러난다. 《소네트》에는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narrative plot)가 없다. 많은 학자들이 《소네트》를 재구성하여 이야기의 즐거

4) J.A Cuddon, *A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and Theory*, 3rd ed, (Oxford Blackwell, 1991), p. 250.

5) Felperin, p. 150.

6) Peter Jones, ed., *The Sonnets [of Shakespeare]. A Casebook*. (London: Macmillan, 1977), p. 29.

7) Felperin, p. 150.

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1609년의 사절판 이상의 것이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부스(Stephen Booth)는 《소네트》가 일관된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 씌여진 것이 아니라 단지 “우연적인 시작(詩作)”(aleatory composition)⁸⁾에 의해 씌여졌음을 지적한다. 이는 셰익스피어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네트》를 쓰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네트》에는 하나의 꼭 정확한 순서 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어느 독자가 자기 식으로 《소네트》를 재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나름대로 재구성은 타당하다는 말이 된다. 이는 곧 작자가 사라지고 난 후 그자리에 독자가 대신 들어감을 의미한다. 작자로서의 셰익스피어는 단지 산종자(散種者)일 뿐이며, 《소네트》의 추수는 어디까지나 독자의 몫이 된다. 셰익스피어가 어떤 특정한 순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므로 그는 그저 《소네트》를 바람에 날려 산증했을 뿐이다. 독자는 이렇게 해서 흩어진 《소네트》를 추수자로서 추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추수가 끝난 후 이삭을 줍듯이 줍는다는 은유가 더 적절한지도 모른다. 산종자로서의 셰익스피어는 그러므로 독자에게 텍스트의 의미를 확정지우지 못 한다. 텍스트의 의미는 단지 각각의 독자의 독서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독자는 《소네트》를 오독(misprision)하는 셈이다.

오독 또는 오해로 번역되는 misprision이라는 용어는 해롤드 블룸이 그의 《영향에 대한 불안》(*The Anxiety of Influence*, 1973)이라는 책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는 시의 전통과 시인의 상상력 사이의 상충과 이에 따른 시인의 상상력의 방향을 보여주는 용어이다. 블룸은 시적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적 영향은 두 사람의 강력하고 독창적인 시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언제나 이전 시인의 오독이 이에 선행된다. 이러한 오독은 창조적인 수정 작용으로서 이는 실제적이며 필요한 그릇된 해석이다. 르네상스 이태의 서구 시의 주요 건통은 풍요로운 시적 영향의 역사이다. 이는 또한 불안의 역사이고, 자기구제적인 풍자(caricature)의 역사이고, 왜곡과 심술궂고 고집스런 수정(revisionism)의 역사이다. 이런 것이 없었다면 현대시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⁹⁾

블룸이 위의 인용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오독(misprision)의 중요성이다. 오독은 오인(mistaking), 오독(misreading), 오역(misinterpretation)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다. 이러한 오독은 시의 새로운 전통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오독은 물론 한 시인과 다른 시인 사이에서 행해지지만, 비평가와 텍스트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여기에서 비평가를 독자로 바꿔 보면 독자와 텍스트 사이에서 일어나는 오독은 생산적인 의미의 생성을 위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텍스트와 독자 또는 한 시인과 다른 시인 사이의 동일화(identification)가 불가능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8) Gary Waller, *English Poetry of the Sixteenth Century*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86), p. 219에서 재인용.

9) Harold Bloom, *The Anxiety of Influence: A Theory of Poetry*(New York: Oxford UP 1973), p. 30.

은 아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동일화가 바람직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동일화는 저자에 대한 독자의 증속적인 노예관계이고 또한 독자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오독에 의한 차별성(difference)은 “자유이며 또한 활력”이 된다.¹⁰⁾ 이 경우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오독은 생산적인 의미생성으로서의 오독이며 텍스트의 산중을 가치있게 하는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경우 오독은 의미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끝없이 계속되는 열려진 의미의 확장일 뿐이다. 열려진 의미의 확장은 곧 산중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또한 근본적으로 언어를 “산중의 상태”¹¹⁾로 보는 데리다의 견해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

데리다는 언어 자체가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언어가 의미를 확정한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불안정성을 억압하고 그 자리에 확실성과 진리를 구축하려는 서양 사상의 전통에 그 원인이 있다고 데리다는 생각한다. 언어는 그 자체 내에 존재하는 차이에 의하여 의미가 생성되는 것일뿐이므로 기의(記意, signified)는 기표(記表, signifier)에 의하여 확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더구나 서양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표기 언어(writing)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음성 언어(speech)는 서양 철학의 근간인 “현전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presence)에 그 근거가 있다. 이 경우 기의를 확정지우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음성(voice)이 데리다의 차연(差延, différance)에 의하여 그 허구성이 드러난 이상, 표기언어가 음성 언어 이전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음성 언어의 우위는 의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수습해주는 의미의 중심으로서의 초월적 기의(transcendental signified)를 찾으려는 로고스중심적(logocentric) 전통에 그 존재이유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음성이 언어의 의미의 확정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며, 현전 또한 의미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언어는 단지 기표의 끊임없는 미끄러짐이며, 또한 기표의 연쇄적인 지시일 뿐이다. 이제 기표는 의미의 확정 대신에 의미의 부재(不在)와 공허(空虛)를 드러내 보일 뿐이다. 이러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언어의 끊임없는 산중이다. 그러므로 “산중은 기의의 부재 속에 존재하는 끊임없는 의미의 부재”¹²⁾일 뿐이다. 이에 대해 데리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미의 의미는... 무한한 암시일뿐이고 기표에서 기표로의 무한한 지시일 뿐이다. 기표가 가지는 힘은 순수하고 무한한 모호성에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기의(記意)의 의미를 종결시키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기표의 모호성은 기의의 의미를 기표의 질서 속에서 작용하게 함으로써 기표가 항상 의미화 작용을 하며 그리고 차이로 남아 있게 한다.¹³⁾

언어는 기의의 부재 속에 존재하며 부단히 의미가 생성되지만 그 의미가 종결되지 않는 산

10) Vincent B. Leitch, *Deconstructive Criticism: An Advanced Introduction* (New York Columbia UP, 1983), p. 137.

11) Richard Harland, *Superstructuralism: The Philosophy of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London: Methuen, 1987), p. 135.

12) Harland, p. 135.

13) Harland, p. 135.

중이다. 그리고 오독과 오해는 이러한 산중으로서의 언어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결과이다.

대단한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나, 셰익스피어 자신도 불롬이 쓴 *misprision*이라는 단어를 그의 소네트 87번에서 쓰고 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문맥은 공교롭게도 불롬이 쓰고 있는 의미와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 셰익스피어와 불롬이 의도하는 *misprision*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 시를 먼저 보기로 하자.

잘 가지라! 그대는 내가 소유하기에 과분하여라.
 아마도 그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리로다.
 그대의 가치의 특허장은 그대를 석방하나니,
 그대와의 내인연은 이제 모두 끝났어라.
 그대의 허락 없이 내 어찌 그대를 붙잡으리요?
 또한 그런 부(富)를 지닐 자격이 내게 어디 있으리요?
 이 아름다운 선물을 향유할 자격이 내게 없기에,
 내 특허권은 시효가 끝나 원상으로 돌아가노라.
 그대는 그대 자신의 진가를 몰랐거나,
 나를 잘못 보고 자신을 주었으리라.
 그러므로 그대의 큰 선물은 오해로 주신 것이기에
 바른 재량은 내리시자 그 선물은 본집으로 돌아가는 거니라.
 꿈에 속는 듯 그대를 가졌었거니
 잠잘 때는 황제요 깨면 그렇지 않아라.*

Farewell, thou art too dear for my possessing,
 And like enough thou know'st thy estimate.
 The charter of thy worth gives thee releasing;
 My bonds in thee are all determinate.
 For how do I hold thee but by thy granting,
 And for that riches where is my deserving?
 The cause of this fair gift in me is wanting,
 And so my patent back again is swerving.
 Thyself thou gav'st, thy own worth then not knowing,
 Or me, to whom thou gav'st it, else mistaking;
 So the great gift, upon *misprision* growing,
 Comes home again, on better judgement making.
 Thus have I had thee as a dream doth flatter.
 In sleep a king, but waking no such matter.**

이 소네트는 통상적으로 “이별 소네트들”(Farewell Sonnets)이라고 분류되는 소네트들의 첫 번째 소네트이다. (대개 소네트 87번에서 93번까지의 소네트가 이 부류에 속한다). 이 소

* 피 천득(번역),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시집》(서울: 경음사; 1975), p. 93. 이후 셰익스피어 소네트 시 번역은 이 책에서 인용함.

** Booth, p. 76. 이후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원문 인용은 이 책에서 하겠으며, 출전은 생략하겠음.

네트는 몇 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소네트 87번과 20번단이 여성운(女性韻, feminine rhyme)을 사용하고 있다. 여성운은 이 시의 첫 줄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운이 두 개의 음절에 떨어지는 것으로 첫 음절은 강세음절이고 두번째 음절은 약세 음절이다. 남성운(男性韻, masc line rhyme)이 강세 음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여성운을 사용하는 소네트는 강한 확정적인 신념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는 전통적으로 이 시의 화자가 젊은이와 필연적으로 헤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시로 읽혀 왔다. 그러나 이 시에 나오는 그대(thou)를 젊은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그대가 젊은이로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도 잘 드러난 셈이다.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그의 전기적인 요소와 연관이 있기 보다는 오히려 켈퍼린의 지적대로 《소네트》는 “《소네트》 자체의 문자적 텍스트 성(性)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텍스트”이다.¹⁴⁾ 그렇게 함으로써 《소네트》는 “하나의 인쇄된 책으로서의 《소네트》가 가지게 되는 괴롭고 성가신 존재양식”¹⁵⁾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시에 나오는 “그대”를 텍스트로 바꿔 놓을 수 있다.

이 소네트에서의 의미의 생성은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다. 그 하나의 축은 (텍스트로서의) “그대”의 현전(presence)이고 다른 하나의 축은 “그대”와의 작별이 의미하는 부재(absence)의 축이다. 이 시의 화자는 “그대”의 현전을 경험했다. 이러한 현전의 경험은 단지 으해(misprision)에 의해 가능했다. 이제 화자는 이런 오해로 얻게된 “그대”의 현전을 원상태인 부재로 되돌려 보내고저 한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텍스트로서의 “그대”를 오독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의미의 부여가 가능하지 않은 텍스트를 과잉 독서함으로써 이를 현전으로 받아 들였다는 의미이다. 이제 화자는 이런 오해된 “그대”(텍스트)를 그저 의미부여가 불가능한 빈 텍스트(empty text) 상태로 돌려보내고저 한다. 화자는 이제 과잉 독서의 피해를 인식하고, “그대”(텍스트)는 언제나 빈 것으로 남아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오해로 인해 얻게된 선물(의미)을 사실처럼 실제로 착각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물은 본 집으로 돌아가 빈 중심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읽기가 가능한가?

이 소네트에는 성적인 이미지가 농축되어 있다. 이 시의 첫 줄에 나오는 소유라는 의미가 있는 “possessed”라는 단어는 “성적인 소유”와 “성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이다.¹⁶⁾ 이렇게 볼 때 “그대”와 이 시의 화자는 성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바르뜨(Barthes)가 글읽기의 행위를 성적인(erotic) 행위로 보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성적인 결합에서 얻어지는 성적 쾌락(jouissance)과 같은 것으로 본 것과 같은 이유이다.¹⁷⁾

14) Felperin, p. 150.

15) Felperin, p. 150.

16) Booth, p. 290.

17) Roland Barthes, *The Pleasure of the Text*, Richard Miller, tr. (New York: Hill and Wang,

이런 성적인 희열은 씌여지는 텍스트(writerly text)에서 오는 것으로, 바르뜨는 이를 읽는 텍스트(readerly text)와 구분한다. 이 소네트에 나타난 성적인 암유(allusion)는 그 이외에도 이 시의 마지막 두 줄에서도 나타난다. 화자는 “꿈에 속는듯 그대를 가졌었다”(Thus have I had thee as a dream doth flatter)라고 말한다. 여기서 “가졌었다”(had)라는 말은 부스(Booth)에 의하면 “성적으로 소유했다”(possessed)¹⁸⁾는 의미이고, 제랄드 해먼드(Gerald Hammond)에 의하면 “몽정”(nocturnal emission)¹⁹⁾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내포하는 바는 이시의 화자가 텍스트의 허구를 사실로 오인하여 성적 쾌락(jouissance)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소네트의 마지막 줄은 “잠잘 때는 황제요 깨면 그렇지 않아라”(In sleep a king, but waking no such matter)라고 끝맺음으로써 (텍스트로서의) “그대”가 단지 불확실한 허구임을 보여준다. 더구나 “matter”가 실체(real substance)²⁰⁾를 뜻하므로 이는 구(illusion)로서의 “그대”와 또한 꿈에서의 성적 쾌락의 허구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또한 몽정(nocturnal emission)도 산종(dissemination)과 마찬가지로 정액(semen)의 발산이므로 이 소네트는 결국 산종으로서의 씨뿌림을 은유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다. 산종으로서의 씨뿌림에는 씨(semen)가 필수적이며, 대개의 경우 씨는 의미를 확정시켜 준다. 그러나 씨가 무계획적으로 그리고 아무렇게나 뿌려질 경우 이렇게 뿌려진 씨는 의미를 확정하기 보다는 의미의 혼란만을 야기시킨다. 셰익스피어가 《소네트》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가 가진 작가로서의 권위를 이용하여 의미를 확정하기보다는 작가의 권위를 방기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소네트》가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출판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소네트》에 나타나는 이러한 씨뿌림을 살펴보는 것은 그러므로 《소네트》의 메타시적인 요소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V. 씨뿌림, 결혼, 그리고 시쓰기

젊은이를 내용으로한 소네트에는 다음 두 가지 주제가 주축을 이룬다. 그 첫째는 젊은이에게 결혼할 것을 간청하는 주제이다. 젊은이의 용모는 준수하지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시간 앞에서는 그의 뛰어난 용모와 젊음이 영원토록 보존될 리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네트》의 화자는 젊은이로 하여금 결혼할 것을 권고한다. 결혼하여 자손(이 경우는 아들)을 남음으로써 젊은이는 자신의 젊음과 준수한 용모를 오랫동안 간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씨뿌림이다. 이 시의 화자는 젊은이에게 결혼할 것을 권함으

1975), p. vi.

18) Booth, p. 291.

19) Gerald Hammond, *The Reader and Shakespeare's Young Man Sonnets*(London Macmillan, 1981). p. 110.

20) Booth, p. 291.

로써 그가 씨뿌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다른 주제는 시인(화자)으로 하여금 젊은이의 아름다움을 시 속에 묘사함으로써, 그의 젊음의 아름다움이 영원토록 보존되기를 간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혼과 시(쓰기)는 시간이라는 파괴자로부터 젊음을 유지케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다. 이 둘은 모두 씨뿌림을 공통인자로 가지고 있다. 결혼은 젊은이로 하여금 실제로 씨뿌리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제도이며, 시(쓰기)는 산중에 의하여 씨뿌림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제 몇 편의 소네트를 읽음으로써 이를 보기로 하자. 우선 소네트 3번을 보기로 하자.

눈앞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대의 얼굴에게 이르시라.
 이제 이 얼굴이 또 하나의 얼굴을 형성할 때가 왔노라고.
 지금 새롭게 하여 재생(再生)시키지 않으면
 그대는 세상을 기만하고 한 모성(母性)의 축복을 뺏는 것이다.
 그대에게 첫 가래질 받는 것을
 천히 여길 여성이 어디 있으리오?
 또 그리고 남자로서 누가 자애(自愛)의 무덤에 묻혀,
 후손의 대(代)를 끊으리오?
 그대는 어머니의 거울이니, 어찌니는 그대를 보고
 그의 청춘의 아름다운 4월을 다시 찾으리라.
 그대도 노경(老境)에 자식을 통하여
 주름살이 잡히더라도 다시 황금 시대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잊어버려질 생애를 살고,
 독신으로 죽는다면 그대의 모습도 같이 죽으리

Look in thy glass and tell the face thou viewest,
 Now is the time that face should form another,
 Whose fresh repair if now thou not renewest,
 Thou dost beguile the world, unless some mother.
 For where is she so fair whose unneared womb
 Disdains the tillage of thy husbandry?
 Or who is he so fond will be the tomb
 Of his self-love to stop posterity?
 Thou art thy mother's glass, and she in thee
 Calls back the lovely April of her prime;
 So thou through windows of thine age shalt see,
 Despite of wrinkles, this thy golden time.
 But if thou live rememb'ed not to be,
 Die single and thine image dies with thee.

이 소네트에서 흥미로운 것은 말장난(wordplay)이다. 화자는 젊은이가 결혼하지 않고 죽으면 대(代)가 끝날 것을 강조하면서 그가 결혼할 것을 권한다. 특히 다섯째 줄에 나오는 womb과 일곱째 줄에 나오는 tomb은 그의 말장난의 아주 좋은 예이다. womb과 tomb은

1609년의 사절판에는 모두 *wombe*와 *tombe*으로 표기돼 있다.²¹⁾ 이 두 단어는 운(韻)을 맞추는 외에도 그 의미에 있어 독자의 관심을 요한다. 1609년 사절판에 표기된 이 두 단어는 그 표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의미를 독자가 음미할 수 있다. “가래질을 받지 않은 자궁”(unearred womb)은 결국 “무덤”(tomb)을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서 *tomb*은 엘리자베드 시대의 철자로는 *tombe*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러한 철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첫째 의미는 보통 우리가 아는 *tomb*의 의미인 무덤이다. 그러나 *tombe*는 *tome*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게 된다.²²⁾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데리다가 말하는 음성 언어에 대한 문자언어의 우월성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tombe*을 연극에서처럼 무대에서 발화했을 경우에는 *tombe*이 가지는 *tomb*과 *tome*의 두가지 의미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네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① 결혼하여 씨를 뿌리지 않으면(unearred womb) ② 빈 무덤에 묻히게 되며(*tomb*), ③ 빈 무덤은 곧 빈 책(*tome*)과 같다는 논리이다. 이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씨뿌리기 위한 결혼은 곧 글쓰기로서의 시쓰기이며, 이렇게 볼 때 시쓰시는 곧 씨뿌림이 된다. 이렇게 보면 《소네트》의 화자가 젊은이에게 결혼하기를 권하는 것은 곧 씨뿌림으로서의 시쓰기가 되는 셈이다. 결혼해서 씨(*semen*) 뿌리는 것과 글을 써서 씨뿌리는 것(*dissemination*)은 결국 같은 씨뿌리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 126편의 소네트는 젊은이에게 결혼하기를 권하는 주제를 담고 있지만, 이는 또한 시쓰기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네트》의 중요한 주제는 글쓰기(*écriture*)에 대한 주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소네트》에는 메타-시적인(meta-poetic) 주제를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귀족이 자손을 남기는 것과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다 <씨뿌림>은 각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글쓰기와 등가(等價)가 된다.

그러면 씨뿌리기로서의 글쓰기는 무엇인가? 이는 지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법자인 시간으로부터 생명력을 지키는 일이다. 이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떻게 해서 글쓰기가 시간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가를 소네트 107번에서 보기로 하자.

나 자신이 지닌 기우(杞憂)도
또는 미래의 일들을 꿈꿔 보는 이 넓은 세계의 영혼도
나의 진실한 사랑의 기한을 좌우하지 못하리라,
그 증달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계의 달은 월식을 잘 견디고
슬픈 겁장어들 자신의 예언을 비웃는다.
불안은 지금 확신을 갖게 되고
평화는 올리브나무의 영원한 번영을 선언하도다.
이 가장 향기로운 계절의 이슬에 젖어
나의 사랑은 생기를 더고, 죽음도 나에게 굴복하도다.

21) Booth, p. 6.

22) Felperin, p. 192.

죽음이 원한을 풀는데도 나는 이 서툰 노래 속에 영생하리라.
 그가 우둔하고 말 못 하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더라도.
 그대는 이 노래 속에서 그대의 기념비를 찾으리라.
 폭군의 문장(紋章)과 황동(黃銅)의 능이 사라진 때에도.

Not mine own fears nor the prophetic soul
 Of the wide world dreaming on things to come
 Can yet the lease of my true love control,
 Supposed as forfeit to a confined doom.
 The mortal moon hath her eclipse endured
 And the sad augurs mock their own preságe,
 Incertainties now crown themselves assured,
 And peace proclaims olives of endless age.
 Now with the drops of this most balmy time
 My love looks fresh, and death to me subscribes,
 Since spite of him I'll live in this poor rhyme,
 While he insults o'er dull and speechless tribes.
 And thou in this shalt find thy monument,
 When tyrants' crests and tombs of brass are spent.

이 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중요한 소네트이다. 논란의 초점은 “인간계의 달” (The mortal moon)과 “월식”이라는 어구에 맞추어져 있다. 이 두 어구는 이 소네트가 지칭하는 구체적인 해를 암시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어구가 지칭하는 연도는 구체적일 수 있지만 학설이 구구하기 때문에 1588년에서부터 1609년까지의 어느 해인가는 정확하지 않다.²³⁾ 이렇게 학설이 분분한 것은 달은 엘리자베드 I 세 여왕(1533~1603)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여왕의 치세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일을 월식이라는 어구와 연결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 몇가지의 학설을 들어 보겠다. 레슬리 핫슨(Leslie Hotson)은 이를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 함대에 의해 격파된 1588년으로 보고 있다. (스페인 무적 함대의 초생달 모양의 대형[crescent-shaped formation]은 널리 알려진 대형이다). G.B. 해리슨(G.B. Harrison)은 이를 여왕의 63세 생일인 1595년 9월 6일로 보고 있다. (이를 대재앙의 해[Grand Climacteric]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재앙의 해는 7의 배수가 되는 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에드먼드 체임버즈경(Sir Edmund Chambers)은 여왕이 병석에 있던 1599년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다른 학자들은 여왕이 죽고 제임스 6세(James VI)가 즉위한 1603년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부스는 “이 모든 학설은 신빙성 없으며”(Booth, p. 342), “세익스피어 시대의 독자들이 달을 여왕으로 이해했다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Booth, p. 345)고 말함으로써 이 어구의 해석을 특정한 해에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하는 재현적 사고의 유형(representational mode of thought)을 일축하고 있다. 《소네

23) Booth, p. 343.

트》를 재현적(representation)으로 읽는 것이 불가능함을 필자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이므로, 여기서는 이 소네트에서 시간과 죽음이 어떻게 패배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시간과 죽음의 패퇴는 이 시에서 쓰인 “subscribe”(열째 줄)와 “insults”(열두째 줄)라는 두 단어의 라틴어 어원에서 드러난다. “subscribe”라는 단어는 보통 “굴복하다”(submit) 또는 “합의에 다다르다”(enter into agreemen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의 라틴어 어원으로 미뤄 볼 때 이 단어에는 이름을 문서의 밑에(sub-) 서명한다(scribe)라는 의미가 있다.²⁴⁾ 이는 항복문서 등에서 목숨을 살려 준다는 조건으로 평화 조약을 맺는 경우를 상정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면 죽음은 셰익스피어가 작성한 항복문서(즉 《소네트》) 밑에 서명하고 패퇴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항복문서에 서명한 죽음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는 단지 “말 못하는 사람들을 욕되게 할”(he insults o'er dull and speechless tribes) 뿐이다. 여기에서 쓰인 insult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흥미롭다. 이 단어에는 “걸어차다”(leap against), “던벼들다”(assault), 또는 “욕설을 퍼붓다”(verbally abuse) 등의 뜻이 들어 있는데²⁵⁾, 이는 패퇴한 시간과 죽음의 처참한 처지만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시로 시간과 죽음을 궤멸시키고 시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소네트》는 젊은이의 아름다움의 씨를 영원히 보존하는 그릇이 된다. 시간이 정복되고 아름다움의 씨가 보존된다는 의미에서 《소네트》와 결혼은 같은 가치를 갖는다. 《소네트》는 그러므로 씨의 보존으로서의 시쓰기를 노래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네트 두편을 보기로 하자. 우선 소네트 18번을 보자.

내 그대를 한여름날에 비겨 볼까?
 그대는 더 아름답고 더 화창하여라.
 거친 바람이 5월의 고운 꽃봉오리를 흔들고,
 여름의 기한은 너무나 짧아라.
 때로 태양은 너무 뜨겁게 쬐고,
 그의 금빛 얼굴은 흐려지기도 하여라.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언젠가는 그 아름다움이 기울어지고
 우연이나 자연의 변화로 고운 치장 뺏기도다.
 그러나 그대의 영원한 이름은 퇴색하지 않고,
 그대가 지닌 미는 잃어지지 않으리라.
 죽음도 뺏내진 못하리, 그대가 자기 그늘 속에 방황한다고
 불멸의 시편 속에서 그대 시간에 동화(同和)되나니.
 인간이 숨을 쉬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한
 이 시는 살고 그대에게 생명을 주리.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Thou art more lovely and more temperate:

24) Felperin, p. 189.

25) Felperin, p. 189.

Rough winds do shake the darling buds of May,
 And summer's lease hath all too short a date;
 Sometime too hot the eye of heaven shines,
 And often is his gold complexion dimmed;
 And every fair from fair sometime declines,
 By chance or nature's changing course untrimmed.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Nor lose possession of that fair thou ow'st,
 Nor shall death brag thou wand'rest in his shade,
 When in eternal lines to time thou grow'st.
 So long as men can breathe or eyes can see,
 So long lives this, and this gives life to thee.

이 소네트에서 셰익스피어는 젊은이의 아름다운 청춘이 무르익는 여름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진행에 의하여 완숙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젊은이의 무르익은 젊음은 시간과 죽음을 이기는 시 속에 영원히 간직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숨을 쉬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한 이 시는 살고 그대에게 생명을 주리”라고 이 소네트는 약속한다. 소네트 19번에서는 시가 시간의 더욱 무서운 탐욕을 물리치고 승리함을 보여준다.

탐식(貪食)하는 「세월」이여, 사자의 발톱을 무디게 해도 좋다.
 대지로 하여 그의 아름다운 새끼들을 탐식케 해도 좋다.
 맹호(猛虎)의 턱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뽑아도 좋다.
 장생할 불사조를 불살라 죽여도 좋다.
 내가 질주함에 따라 계절을 즐겁게, 슬프게 해도 좋다.
 발걸음 빠른 세월이여, 네 마음대로 행동하라.
 넓은 세계와 쉬 스러질 모든 미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 다만 하나의 큰 죄를 금하노니,
 오! 내 벗의 아름다운 이마엔 너의 시각(時刻) 새기지 말라.
 그대의 태고(太古)의 붓으로 그 얼굴에 주름을 긋지 말라.
 후세 사람들에게 미의 표본이 되도록,
 그를 너의 행로에서 더럽히지 말라.
 늙은 「세월」이여, 네 비록 이 죄를 함부로 저지르지라도,
 나의 벗은 내 시 속에서 영원히 젊게 살리라.

Devouring time, blunt thou the lion's paws,
 And make the earth devour her own sweet brood;
 Pluck the keen teeth from the fierce tiger's jaws
 And burn the long-lived phoenix in her blood;
 Make glad and sorry seasons as thou fleet'st
 And do whate'er thou wilt, swift-footed time,
 To the wide world and all her fading sweets;
 But I forbid thee one most heinous crime,

O carve not with thy hours my love's fair brow,
 Nor draw no lines there with thine antique pen.
 Him in thy course untainted do allow,
 For beauty's pattern to succeeding men.
 Yet do thy worst, old time; despite thy wrong,
 My love shall in my verse ever live young.

탐욕스럽고 잔인한 시간은 세상의 모든 사물에 흠집을 낸다. 그는 마치 “태고의 붓”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에 세월의 주름을 새기기라도 하는 듯 하다. 그러나 시간의 이러한 “태고의 붓”은 셰익스피어의 것이 되어 그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존하는 시를 쓰게 한다. 그리하여 “나의 벗은 내 시 속에서 영원히 살리라”라고 시인은 약속한다. 이러한 약속은 shall이라는 조동사가 의미하는 바처럼 아주 단호하고 결의에 차있으며 또한 위협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십계명에 나오는 shall의 권위있는 명령을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V. 텍스트 사이에서 살아나는 살결이 검은 여인

《소네트》에 나오는 준수한 젊은이(the fair young man)를 셰익스피어의 일생과 연결시켜 찾아내려는 노력이 대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살결이 검은 여인(the dark lady)을 셰익스피어의 생애에 나타난 여인 중에서 찾으려는 노력 또한 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성행했다. 검은 여인의 후보로 오른 실재인물로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셰익스피어의 부인이었던 앤 해더웨이(Anne Hathaway). ② 필립 시드니(Philip Sidney)의 소네트 시집인 《별의 연인과 별》(*Astrophel and Stella*)에 나오는 별(Stella)인 페넬로프 리치 부인(Lady Penelope Rich). ③ 옥스포드(Oxford)에 있던 여관 주인의 첫번째 부인인 앤 대브넌트(Anne Davenant)이거나 또는 그의 두번째 부인인 제인 대브넌트(Jane Davenant). ④ 엘리자베드 1세 여왕의 시녀(Maid of Honor)였던 메어리 피튼 부인(Mrs. Mary Fitton). 켈브룩 백작인 윌리엄 허버트(William Herbert, third Earl of Pembroke, 1580~1630)가 그녀에게 연정을 품어 그녀로 하여금 그의 사생아를 낳게 했다. 그 결과 둘이 모두 궁정에서 추방되었다. (켈브룩 백작도 여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다. 이로 인해 이 둘은 일시 투옥되기도 했다. 켈브룩 백작을 《소네트》에 나오는 젊은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피튼을 검은 여인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초상이 세 개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그녀가 회색(grey)의 눈빛을 하고 있고, 살결은 희다. ⑤ 루시(Lucy)라고 불리우던 흑인 창부. 그러나 위의 인물중 어느 누구도 검은 여인으로 확실시되는 사람은 없다. 부스는 “그녀 [검은 여인]는 젊은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학적인 창조물일지도 모른다. 셰익스피어가 실재했던 인물이나 사건을 말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증이 없다”²⁶⁾고 말한다.

26) Booth, p. 549.

펠퍼린은 검은 여인을 가리켜 “언어적인 차이만을 재현해 주는 <초모방적>(metamimetic) 작업”²⁷⁾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녀는 “씩여지는 [텍스트로서의] 검은 여인”²⁸⁾이라고 펠퍼린은 말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젊은이의 경우에서처럼 검은 여인은 실제인물로서의 현재(presence)의 재현(representation)이 아니고 단지 텍스트 속에서만 살아 있는 인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검은 여인을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살펴봄으로써 그녀가 갖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살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소네트를 쓴 것은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에서라기보다 그가 살던 시대를 풍미하던 문학 사조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1591년에 나온 시드니의 《별의 연인과 별》이 일으킨 소네트의 유행 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소네트》를 썼다. 그렇다면 그는 소네트의 주제가 거의 고갈됐을 때 자신의 소네트를 쓴 셈이다. 이에 대해 케네드 뤼어(Kenneth Muir)는 이렇게 쓰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소네트라는 형식을 택하여 시를 쓰게 된 것은 16세기의 마지막 10년간 소네트가 풍미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가 한 세대 먼저 태어났거나 또는 한 세대 늦게 태어났더라면 그는 소네트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1560년에 소네트를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1620년이 되어서는 소네트는 한물갔다.²⁹⁾

그렇다면 우리는 《소네트》에 나오는 검은 여인과 시드니의 소네트 시집인 《별의 연인과 별》에 나오는 별(Stella)과의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살펴볼 수 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검은 여인은 별의 패러디(parody)이기 때문이다. 시드니의 소네트 시집에 나오는 여인은 페트라르카(Petrarcha)의 소네트에 나오는 로라(Laura)의 전통을 이어받은 여인이다. 따라서 시드니의 소네트에 나오는 여인은 순수하고 때문지 않은 이상화된 여인이다. 그녀의 애인은 그녀가 그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를 원하기는 해도 그녀가 실제로 그렇게 타락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네트에서 쓰이는 언어는 역설(逆說)의 언어이다. 소네트에서의 여인은 아름답지만 잔인할 정도로 매정하다. 그녀는 욕망을 일으키지만 정결하다. 그러므로 그녀의 애인은 고통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자신의 고통이 멎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는 그의 연인이 그가 없음을 서글퍼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다. 소네트에 나오는 이런 남녀 관계는 중세 기사도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그러므로 소네트에 나오는 여인은 정신적(spiritual)이고 숭고하고 심오하다. 그녀와 그녀의 애인 사이의 육체관계는 그러므로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시드니의 소네트에 나오는 순결하고 고귀한 여인을 검은 여인으로 패러디하고 있다. 검은 여인은 그녀의 행실을 상징하더라도 하듯 얼굴과 머리가 겹다. 그

27) Felperin, p. 193.

28) Felperin, p. 194.

29) Kenneth Muir, *Shakespeare's Sonnets*(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9), p. 44.

리고 그녀는 정숙하지 않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그의 《소네트》에서 성적인 관계를 외설스러울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고갈된 소네트의 전통을 패러디함으로써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한 셈이다. 이런 예를 소네트 129번에서 보기로 하자.

음욕을 행하는 것은 수치스런 낭비에 의한 정신의 소모라
 험하기 전까지도 음욕은
 위중이요, 살인이요, 잔인이요, 오욕이라
 야만이요, 과격이요, 조야요, 잔학이요, 불신이라.
 향락이 끝나면 곧 경멸이요
 이성을 지나쳐 추구하고 그것을 얻자마자
 이성을 지나쳐 미워하도다,
 마치 삼킨 자에게 고통 주려고 고의로 놓여진 미끼를 미워하듯
 추구하는 동안도 광증이며, 얻은 뒤도 광증이라.
 행한 뒤도, 행하고 있는 것도, 행하려는 그것도 다 극단이라.
 경험 중에는 축복이요, 경험 뒤에는 비애라
 그 전에는 환희요, 그 후에는 악몽이라.
 이 모든 것을 세상은 알지만 잘 아는 이 없으라,
 지옥으로 사람을 이끄는 그 천국을 피할 줄은.
 (14행의 天國은 肉體의 歡樂境을 말함)

Th'expense of spirit in a waste of shame
 Is lust in action, and till action lust
 Is perjured, murd'rous, bloody, full of blame,
 Savage, extreme, rude, cruel, not to trust,
 Enjoyed no sooner but despised straight,
 Past reason hunted, and no sooner had,
 Past reason hated as a swallowed bait,
 On purpose laid to make the taker mad;
 Mad in pursuit, and in possession so,
 Had, having, and in quest to have, extreme,
 A bliss in proof, and proved, a very woe,
 Before, a joy proposed, behind, a dream.

All this the world well knows, yet none knows well
 To shun the heav'n that leads men to this hell.

이 소네트는 사랑이 아니라 음욕(lust)을 다룬다는 점에서 소네트 전통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소네트 시의 전통에서는 여인에 대한 사랑은 연인을 천국으로 이끄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 시에서는 사랑은 그 반대로 지옥으로 이끄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네트는 구애(courtship)에 대한 반감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 소네트에서는 페트라르카의 소네트에서는 금기시되는 성적 결합을 세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준다.

첫째 단계는 “행위가 있기 전”(till action)의 음욕(lust)의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성행위”(lust in action)이고, 셋째 단계는 성행위 후의 단계를 묘사한다.³⁰⁾ 더구나 첫 줄에서 쓰인 “spirit”라는 단어에는 “정액”(semen)³¹⁾ 또는 “발기된 성기”(erect phallus)³²⁾라는 의미가 함축됨으로써 검은 여인이 불러 일으키는 성욕을 잘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검은 여인은 산중(dissemination)을 유발시키는 텍스트 사이에 사는 인물로 볼 수 있다.

VI. 짧은 결론 긴 여운

지금까지 필자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나오는 준수한 젊은이(the fair young man)와 살결과 머리가 검은 여인(the dark lady)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관계된 실재인들의 재현(representation, mimesis)이 아니고 단지 셰익스피어가 페트라르카나 시드니의 소네트 전통을 대승적으로 파괴하고 그 위에 그 자신의 소네트의 전통을 세우는 과정에서 창조한 문학적인 창조물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주장을 전개함에 있어 필자는 탈구축이론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인 산중(散種)이라는 용어를 집중적으로 원용하였다. 우리는 지금 유일(唯一)하고 절대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포스트”(post)담론 시대에 살고 있다. 필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이는 포스트 담론의 설득력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또한 오류의 씨앗을 그 안에 잉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절대 유일의 진리로 여겨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필자의 이론은 단지 T.S. 엘리엇의 말을 염두에 두고 출발한 것일 뿐이다. 즉, “우리의 평가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끔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고.

30) Joseph Pequigney, *Such Is My Love: A Study of Shakespeare's Sonnets*(Chicago: U of Chicago P, 1985), p. 157.

31) Louis, B. Wright and Virginia A. LaMar, eds., *Shakespeare's Sonnets*(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1967), p. 129.

32) Felperin, p. 188.

《Abstract》

**Poetry Writing as *Écriture*: Meta-poetic Elements
in Shakespeare's *Sonnets***

Chong-Ho Lee

In attempting to read Shakespeare's *Sonnets* in a way different from the ways of the past, I begin my argument by quoting T.S. Eliot: About anyone so great as Shakespeare, it is probable that we can never be right; and if we can never be right, it is better that we should from time to time change our way of being wrong. Therefore, my reading of the *Sonnets* is, in a sense, one more "way of being wrong." There is a possibility, rather, a great probability, however, that my reading may prove to be right in a wrong way and/or wrong in the right way.

Many critics have so far read the *Sonnets* as representing some aspects of Shakespeare's life. As Stephen Booth denies such claims to validity emphatically and categorically, this representational mode of interpretation of the *Sonnets* is shot through with many holes in it. The time has come for us to try a new way of reading the *Sonnets* by throwing out the old-fashioned method of representational interpretation.

My reading of the *Sonnets* is in essence deconstructive in that I don't see any connection between some elements in the *Sonnets* and those in Shakespeare's life. What I am trying to say is that Shakespeare was writing the *Sonnets* as *écriture*. Therefore the fair young man and the dark lady are pure literary creations, as Booth claims. Just as Shakespeare urged the young man to marry so that his youth could be preserved through his male offspring, Shakespeare may have wanted to preserve his *Sonnets* by way of writing a meta-poetic *écriture*.